

개화기 한국가정생활: 매일신보 사설을 중심으로*

Korean Family life in Early 20th Century :
Editorial of Maeil-Shinbo, 1910~1945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임정빈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Prof. : Jeong Bin, 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가정생활변화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family life and its changing process in the early twenty's century. It is explored through the editorial of the Maeil-Shinbo during 1910~1945. It is valuable work to explore of family life in the Maeil-Shinbo newspapers because it was continuously published from 1910 to 1945. The author attempted to study family life in five major fields such as food and nutrition, clothing, resource management, family, and child care. And of the articles food and nutrition parts ranks the highest order and clothing care was the second highest.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many of articles were about to family life but decreased its amount by 1940. Of the editorials, most articles had dealt with the educational contex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family life

I. 서론

한국사회는 19세기말 개화기부터 20세기말까지 격

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면 20세기초부터 주변 국가들의 국제간의 관계가 개방

*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되고 상호교류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조선 말기에 밖으로는 외세 유입으로 정세가 불안하고 안으로는 정권다툼과 양반과 토호들의 백성에 대한 착취로 민란이 빈번한 상황이었다. 쇄국정책을 펴오던 구한말에 동학난을 평정하기 위해 일본과 청국에 구원을 청하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청·일 전쟁이 발발되었고 일본의 승리로 한국은 일본 치하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 사회에는 개항 이후 개화사상이 개신 유훈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자강사상(自強思想)으로 발전되었다. 개화사상은 19세기말 이후에 발전된 실학사상을 기초로 발전·계승되어 제도를 혁신하고 民力を 양성하여 세계 속의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봉건적 전통사회를 근대적인 시민사회로 전환시키려는 지도이념을 가지고 서구의 문물을 도입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과학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사상을 다 실현시키지 못하고 일본 치하에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은 그 후 36년의 일제치하를 거쳐 광복을 맞이하였고 그 후 이어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바로 6·25전쟁을 치루었다. 전쟁이 종전된 후 전후회복과 동시에 산업화·민주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매우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은 지난 한 세기동안 엄청난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체성을 자리잡을 사이도 없이 변화와 혼돈 속에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생활의 기본적인 단위이고 생활의 장(場)인 가정생활에도 물론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격변기를 맞이하는 초기부터 한국사회가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왔는가를 하나 하나 돌아보고 정리하는 일은 우리 생활사의 배경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가정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과거의 가정생활상을 돌아보고 미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전망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한국의 생활문화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때부터 단계적으로 그

변화되는 모습을 정리해 놓는 것은 가정학적인 측면에서 생활문화 변천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것을 알아 볼만한 체계적인 기록이나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교적 변화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출간된 <매일신보>를 자료로 하여 여기에 게재된 기사중 「사설」을 연대별로 수집·분석하여 그 시대의 생활문화의 변화모습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매일신보>는 일제치하에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발행된 한국어 일간신문이며 1904년 7월 18일 영국인 배선(Ernes Thomas Bethell)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를 일제가 사들여 1910년 8월 30일부터 <대한>을 떼고 <매일신보>로 게재한 것이다. <매일신보>는 일제가 한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날부터 광복되던 날까지 중단된 일 없이 발간된 단 하나의 한국어 신문이다. 192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의 민족지가 창간되었으나 중간에 폐간된 기간이 있어 지속적인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의 내용을 의생활·식생활·가정관리·가족·자녀양육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사설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그 시대의 생활상을 정리하고 파악하려고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전통적인 농경사회로부터 근대화 과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해당되는 시기부터 가정생활의 변화모습을 파악·분석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개항시기 즉 개화기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그 시기에 기록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비록 일제치하에 있었던 시기이기는 하나 1910년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지속적으로 출간된 <매일신보>의 기사를 기초자료로 그 시대의 가정생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일신보>는 일제가 한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날부터 광복되던 날까지 중단된 일 없이 발간된 단 하나의 한국어 신문이

라는 점에서 하나의 기록으로서 사용될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매일신보〉가 일제치하의 조선총독부 기관지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주체성이 가리워진 간행물이고 한국 생활의 순수한 변화를 파악하는데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 시기에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발행된 인쇄물이라는 데에 기록적 가치를 두려고 한다. 또한 이 신문은 순수한 한국어로 제작된 것으로서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계몽기사 등을 통하여 그 시대의 생활모습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 중 「사설」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사설은 국제적·국내적 시사문제에 관해서 신문사가 그 회사의 책임으로 표명하는 의견이나 주장, 논설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초기의 사설은 민중의 계몽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일반 민중의 지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설의 성격이 바뀌었다. 현재의 사설은 그때 그때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하여 민중의 입장에서 비평함과 동시에 민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적인 역할을 하는 성격이 강해졌는데 이는 외국의 신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설의 내용을 식생활, 의생활, 가정관리, 가족·육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빈도를 분석하고 년, 월, 일별로 빈도를 분석한 후 또 연대별 빈도를 기초로 내용을 분석하여 그 변화된 경향을 파악하였다.

Ⅲ. 가정생활변화

1. 의생활분야

구한말에서 일제치하의 시기에 한국인의 모발은 남녀모두 장발이었고 혼인한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쪽을 찌고 있었다. 복장은 흰색을 주고 하고 남자 겉옷은 검정색으로 한 한복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신문에서는 머리는 남녀간에 짧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과 긴 옷이 불편하니 의복 개량이 필요하다는 것과 유색옷을 착용하여 취미와 개성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계몽하고 있다. 이

점을 반복적으로 다루므로써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대별로 사설내용을 분석하면 1910년대에는 긴 머리와 길이가 긴 옷의 불편함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부녀들의 사치를 경고하고 있다. 1920년대에는 영아의 옷도 간편하고 위생적인 옷을 소개하고 권장하며 동시에 의복개량과 염색공업을 발달시킬 것을 촉구하였고 1930년대에도 역시 색의를 장려하면서 유해염료를 다루었는데 이는 의복개량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피를 개량하고 양잠을 장려하여 피복재료를 다양하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표 1).

이러한 현상은 개화기부터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생활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가지로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것이 기초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2. 식생활분야

식생활에 관한 사설은 1910년대에 37건으로 가장 빈도 높게 나타났는데, 식생활 문제는 인간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설의 내용은 주로 식품위생문제를 크게 다루었고, 농업개량, 쌀의 종자개량을 다루면서 식량증산을 꾀하였고 농가의 부식물, 米價의 조절, 곶음을 하지 말 일, 편식의 문제, 비타민의 중요성 등 다양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 당시 식품위생에 대한 관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음식물을 통한 세균의 오염으로 인한 전염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몽적인 내용을 빈도 높게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업개량, 품종개량을 통해서 단위당 곡물 생산량을 증가시키려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영양소 중 미량이나마 인체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의 기능과 비타민 함유식품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한편 「조선미 수출」, 「内地의 鮮米판매」, 「鮮米개량의 추세」등의 사설에서는 한국의 미곡생산량을 증가시켜서 일본의 식량사정을 호전시키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1920년대에 식품위생을 강조하였고, 1930년대에는 하절기에는 식품위생, 다른 계절에는 술, 편식, 불량염료, 음식 익혀먹기, 장담그기 등을 다양하게 다루었다(표 2).

〈표 1〉 의생활 관련 연도별 사설

년	월	일	사 설 제 목
1910	9	8	단발과 衣制改良에 대하여
		9	長衣의 當廢
1911	1	24	부녀의 長衣
		4	부인의 衣制
1912	10	24	귀족부인과 양잠
1913	4	20	귀족과 양잠
		24	조선산의 직물
1914	5	6	조선의 직물업
		11	부인의 가정 수예
		12	부녀계의 사치(1)
		21	부녀계의 사치(2)
		22	부녀계의 사치(3)
		23	부녀계의 사치(3)
1920	1	3	우피개량의 필요
		7	
1920	2	9	영아에 新衣를 着하라
		9	위선 의복을 개량하라
1921	1	8	의복개량을 실행하라
		12	조선 염색공업의 發達을 促함
1930	10	10	色衣장려
1931	5	22	여자의 단발은 여러 가지로 편리
		25	우리는 일제히 색옷을 입을시다
1937	3	27	색의를 입는데서 취미도 향상된다
		9	유해 염료 이야기
1943	3	2	의복의 정신적 반영
		3	의복과 경제문제

〈표 2〉 식생활 관련 연도별 사설

년	월	일	사 설 제 목	
1910	12	27	米質 개량과 보조	
1911	2	10	음식의 청결	
		3	米商의 악습	
1911	3	1	음식점의 개량	
		5	음식점의 폐해	
		25	요리점의 폐해	
		6	음식의 주의	
		6	과수재배의 필요	
		7	양어의 필요	
		8	경성 각 상점	
		8	위생의 시기	
		10	19	농업개량의 시기
		22	22	농작물 선종의 급무
1911	11	31	풍년과 저장	
		15	米種의 개량	
		16	음식商의 단속	
		29	조선미 수출	
1911	12	23	농작물과 시장	

〈표 2〉 계속

년	월	일	사 설 제 목
1912	10	12	조선의 풍작
	12	5	농가의 부식물
1913	3	23	양어의 이익
	6	17	改食稻種의 보급
	7	6	寺內 총동담 - 米作개량
	8	8	寺內 총동담 - 대두 급맥작
	8	26	內地의 鮮米 판매
	9	13	미곡조제의 개량
	10	26	농민과 외국미
1914	11	6	위생과 주류업자
		25	곡종개량의 필요
	3	3	농가의 부식물
	6	6	음식의 개량
	7	25	위생에 대하여(1)
		26	위생에 대하여(2)
		28	위생에 대하여(3)
1915	1	28	米價 조절과 조선
1915	1	29	米價 조절이 조선에 미치는 영향
	5	4	鮮米 개량의 추세
1918	8	21	식량문제에 대하여
1921	7	8	전염병 예방과 위생선전
		10	위생관념의 결핍(상)
		11	위생관념의 결핍(하)
1927	12	28	식염 자급이 필요
1928	6	27	여름철 음료에 대하여
1936	11	28	술에 영양이 있다는 것 말장한 거짓말
1937	1	9	적당하게 먹으면 약도 됩니다 - 과음하는 것이 술먹는 이의 병입니다.
	6	21	하절음식으로 가장 적당하다. 편식 때문에 부족되는 비타민도 보충
	7	5	음식은 무엇이나 잘 씹어 넘겨야 한다.
	10	22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리의 불량음료 잘못 사먹으면 큰일
	12	3	음식은 전부 익혀서 먹고 예방주사를 할 일, 무엇이나 소독을 하자.
	6	6	조선음식과 「비타민」씨
	12	12	맛있게 간장을 담글 때주를 섞어야 할 시절
1940	3	18	편식을 하지 말고 항상 음식을 조심하십시오.

여러 분야의 내용 중 식생활과 관련된 사설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식생활 양식에 대한 교육 및 계몽을 위한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식량증산 정책을 도입하여 일차적으로는 식량을 증산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증산된 미곡을 일본으

로 반출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3. 가정관리분야

가정관리분야에는 가정경제, 생활개선, 가정교육,

위생, 주거생활에 관련된 기사가 포함된다. 그 중 위생에 관한 사실이 12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910년대와 1920년대 초기에는 청결과 위생관념에 대하여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생활 분야에서 식품을 위생적으로 다루고 저장 가공하며, 조리시에도 위생적으로 할 것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개선에 관하여 생활방법을 개선하고 정리·정돈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계몽하고 있으며 가정의 부인 즉 주부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표 3).

가정교육, 자녀교육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가정에서 자녀에게 생활교육을 시킬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주부와 경제문제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아 근대 경제사회체제에서의 가정에서의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게 하였다고 본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근대산업사회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가정의 중요성과 주부의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영역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古 건축물을 보호할 필요를 말하는 한편 조선가옥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과 능률적이지 못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조선가옥 중 특히 부엌 구조의 불편함과 진흙 부뚜막과 흙바닥 상·하수처리 문제의 비위생적인 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계몽내용이다.

4. 가족분야

가족분야는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빈도나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이었으며 1940년대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이 시기는 제 2차대전 시기라는 시대적 특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표 4). 사실의 내용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 가장 빈도 높게 다루어지고 있다. 早婚의 폐습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신체적, 정서적, 지성적으로 미성숙된 상태에서의 혼인은 부부생활 및 자녀출산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조혼을 한 남자는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정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건전한 가정을 유지해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녀출산, 자녀

교육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그 당시 영아 사망률이 높고 보육에 관한 위생적 관념이 부족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전염병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자녀교육을 서당교육이 아닌 학교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잠재력을 다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구미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부부중심의 가족형태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재산 상속의 문제와 동성동본간의 혼인시비는 벌써 50~60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연대별, 분야별 빈도

36년간 게재된 가정생활관련 사실의 총 빈도는 138건이었으며 연대별로는 1910년대에 89건, 20년대에 23건, 30년대에 21건, 40년대에 5건이다. 초기에는 가정생활에 관련된 내용의 사실을 자주 다루었는데, 이는 개항기에 있었던 생활개선 계몽운동의 연장이었다고 본다. 그 후 점차 그 빈도가 적어졌다. 40년대에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인해 <매일신보> 출간이 중단된 이유도 있고 그 당시에는 제 2차 세계대전 전성시기이었으므로 가정생활에 관한 사실보다는 더 긴박한 기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활분야별로는 식생활분야의 사실이 5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정관리분야에 42건, 의생활분야 23건, 가족분야 23건으로 같은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가정관리분야는 생활개선, 가정교육까지 포함시켜서 분류하였으므로 세분하면 의생활분야의 빈도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식생활, 의생활 분야의 내용이 주로 많이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연대에 따라 보면 식생활분야에서 1910년대에 37건으로 가장 많다.

주된 내용은 음식위생문제를 많이 실었고 농업개발, 쌀의 종자개발, 부식물, 편식, 미량영양소인 비타민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1920년대에는 4건이 있는데 역시 여름철 음식위생에 관해 계몽하였고 1930년대에는 8건으로 내용은 편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고 1940년대에는 1건에 불과하였다(표 5).

의생활분야는 1910년대에 13건이 있는데 주로 단

〈표 3〉 가정관리분야(가정경제, 생활개선, 위생, 가정교육, 주거 등) 연도별 사설

년	월	일	사설제목
1910	9	16	가정교육의 필요성
		23	허식의 악습을 타파할지어다(1)
	25	허식의 악습을 타파할지어다(2)	
1911	11	19	자녀교육의 必要
		23	귀족가정 정리기
	12	17	생활정도의 개량
		18	생활정도의 개량(속)
		19	생활정도의 개량(속)
		20	생활정도의 개량(속)
		21	생활정도의 개량(속)
		22	생활정도의 개량(속)
	8	10	위생의 시기
		19	위생의 시기
24		생활난의 套語	
9	3	미신의 폐해	
		조선부인의 근로	
	19	조선귀부인에게 고향	
		청결의 시기	
1911	10	6	古 건축물의 보호
1913	8	14	가정의 공예
		3	시장의 개량
1914	5	26	위생의 주의
		28	저축의 기본
	7	25	위생에 대하여(1)
		26	위생에 대하여(2)
		28	위생에 대하여(3)
1916	8	17	內地處疫과 위생
1921	7	8	전염병 예방과 위생선전
		10	위생관념의 취지
		11	위생관념의 취지
1924	12	12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관계
1927	2	16	가정원예의 장려
		8	가정생활을 학교의 연장으로
		11	가정을 지배하는 주부의 책임관념
1928	5	12	일반가정에서는 소독약을 준비
		10	생활개선에 대한 일가견-우리가정 주방에 대한 관련
			생활개선에 대한 일가견-생활표준은 간이와 실익으로
1930	12	27	구력설을 지킴은 재래의 습관일 뿐
1931	5	21	조선가옥의 개선에 대하여
		21	주부와 경제
	26	배운 것은 실생활에 이용하기 바란다.	
1937	12	1	저녁식사 끝의 살림살이 의논과 자녀재롱 보기
1943	2	28	살림살이 정돈부터
		3	의복과 경제 문제

〈표 4〉 가족분야(가족관계, 제도, 육아)연도별 사실

년	월	일	사 설 제 목
1910	10	16	風說과 早婚
		19	風說과 早婚(속)
	11	19	자녀교양의 연구가 필요
		12	1
	1911	1	22
14			가족제도의 개선
2		15	가족제도의 개선(속)
		9	改化和 老少의 관계
1913	4	11	부부의 관계
		12	家會의 폐습
	12	7	조선혼인의 積弊
1914	3	26	아동의 체육
1921	2	9	아동의 정월
1923	3	21	입학난과 아동
1928	4	11	장자별거와 차·삼남재산 균배문제의 시비
		5	5
	6	6	임신부터 육아에 일반표준 발표 : 乳兒의 保育
		18	영·미국의 가정의 부부를 중심으로
1930	4	12	이혼과 집단혼
		13	일부다처의 가치
	8	16	부자연한 결혼은 한 평생을 그르쳐
1937	4	2	아이를 모아 놓고 재미있는 얘기를 한 아이는 이들의 생명양식이 된다.
		6	11

〈표 5〉 연도별, 분야별 가정생활관련 사실 빈도

연대	분야	의	식	가정관리	가족·육아	계
1910		13	37	27	12	89
1920		4	4	9	6	23
1930		4	8	4	5	21
1940		2	1	2	0	5
계		23	50	42	23	138

발과 색의, 의복개량을 주장하였고 특히 부녀의 長衣를 개량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보인다. 의생활분야

역시 1910년대에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내용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별다른 점은 없었다.

가정관리분야는 1910년대에 27건이 다루어졌는데 생활개선, 청결, 위생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1920년대에 9건이 있는데 역시 위생, 생활개선을 강조하였다. 가정은 주부가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산업화 사회에서 직·주 분리현상이 나타나면서 주부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1930년대에는 구체적인 생활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리·정돈의 문제, 가족회의, 주부와 경제, 가족개선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가족 및 육아분야에서는 가족제도 개선, 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의 내용을 다루었는데 가부장적 봉건농경사회에서 부족사회형태로 있는 가족제도의 개선과 조혼의 생리적, 사회적 문제점을 알려 줌으로써 성인이 된 후에 혼인하고 성숙된 후에 부모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계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생리적으로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지성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본 논문은 한국의 격동기 초기의 가정생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 시기에 계속 출간되었던 <매일신보>의 사설을 수집·조사·분석하였다. 매일신보는 비록 일제치하의 총독부에서 발간한 신문이기는 하나 한국어로 되어 있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중단 없이 계속 출간된 신문이라는 점에서 기록의 가치를 둘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시기는 구한말 개항 이후 개화사상이 실학사상을 기초로 발전·계승되어 제도를 개선하고 사람들을 계도하여 세계 속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으나 일·러 전쟁 후 일본의 치하에 있게 되어 한국인이 자체적으로 개화하려는 운동은 빛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 기본이념은 일본치하에서도 계속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보> 사설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해보면 식생활·의생활·가정관리·가족분야 모두에서 봉건적 전통 농경사회에서 근대적 시민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활의 비과학적, 비합리적, 비기능적

인 부분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개선하려는 계몽·교육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문의 사설이 최근에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서 정치·경제·사회문제에 대하여 비평과 해설을 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사람들을 계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점을 서구의 신문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사설내용의 빈도를 보면 식생활분야의 내용이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졌는데 역시 인간생활 중에서 식생활이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말해준다고 본다. 첫째는 식생활의 위생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음식물의 세균오염을 방지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특히 전염병 예방에 주력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농업에 있어 종자개량과 농사방법을 개량하여 곡물증산을 장려하였고 부식물을 다양화하도록 계몽하였다.

의생활분야의 사설빈도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남·녀 모두 머리모양이 장발인 것을 지적하고 짧은 머리를 장려하였다. 또한 복장은 유색옷과 염색, 염료에 대한 것을 소개하였고 특히 영아에게는 위생적이고 편리한 옷을 권장하였다. 의복개량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우피, 양잠, 직물, 염색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가정관리분야는 편의상 생활개선, 위생, 주거, 가정교육, 가정경제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조사·분석하였다. 이 분야에서도 역시 생활개선, 정돈, 허식타파, 청결위생, 주부의 역할, 저축과 가정경제 문제, 조선가옥 특히 부엌의 개선, 자녀교육, 학교교육과 가정의 관계 등을 다루었다. 여기에서 유의하여 볼 부분은 가정을 관리하는 것은 주부라는 것을 강조하여 근대사회에서 직·주 분리된 상황에서는 가정이 생활의 장(場)으로서 중요하고 그 가정을 관리하는 역할과 책임이 주부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종전에 농경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정의 관리와는 매우 달라진 가정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다.

가족·육아분야에서는 조혼, 일부다처제, 부자연한 결혼, 동성동본 혼인시비, 장자별거, 차남·삼남 재산 균배문제 등을 다루면서 가족제도 개선을 강조하였으나 다른 분야의 개선과는 달리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가치·규범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은 부부중심이어야 한다는 근대사상과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조직의 기초가 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신문사설을 통해 한국가정생활의 모습을 찾아보았고 그 시기에 가정의 문제점과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은 어떤 것이었나를 살펴보았다. 초기에 변화는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주변 국가들의 영향도 있었지만 한국이 현재와 같이 변화·발전하는데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세기동안 한국의 가정생활은 매우 큰 변화를 겪었고 그 속도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참으로 급속도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가정생활의 변화과정을 정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후속연구는 같은 시기의 <매

일신보> 기사를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조사·분석하려고 한다. 기사는 분량은 너무 많아서 사실과는 별도로 하려고 한다.

【참 고 문 헌】

- 1) 동아백과사전(1993)
- 2) 이광균 외(1983), 한국가정생활사, 한국방송통신대학.
- 3) 이차숙(1993), 한국가정생활사, 서울 : 교문사.
- 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1972), 한국여성사 2, 이화여자대학출판부.
- 5) 한우근·이성무(1985), 史料로 본 한국문화사 - 조선후기편, 서울 : 일지사.
- 6) 홍형옥(1992), 한국주거사, 서울 : 민음사.